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시범운영

18일부터 이용 가능, 출국소요시간 30% 단축 기대

오는 18일부터 인천공항에서 보행 장애인, 고령자, 유소아, 임신부 등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교통약자의 출국이 훨씬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 박완수)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빠르고 편리한 출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출국장인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을 신설하여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일인 10월 18일부터 이용객이 붐비는 오전시간대(8~10시)에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서비스란 우선적 처우가 필요한 여객(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출국통로를 통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대상인 교통약자는 보행 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80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등이 포함되며 교통약자 여행객의 편의지원을 위해 출국 시 동반여객도 2인까지 함께 이용가능하다.

또한 법무부가 총괄 관리하는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자도 동반여객 2인까지 출국 시 합

계 이용가능하도록 했다.

이외 모범납세자, 독립유공자, 고용창출, 가족친화, 동반성장,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업체 종사자, 외국인 투자자, 종합인증우수업체 카드 소지자, 기업인카드(CIP) 소지자 등도 이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최초 시행되는 서비스인 만큼 교통약자 등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편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1번 출국장 옆), 오전 8~10시에 한해 제한적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대상은 인천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를 감안, 장애인 등 교통약자(동반인 2인 이내 포함)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11월부터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우대자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이후 그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정식운영(동-서편, 전 시간 개장)할 예정이다.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완전 개통 시에는 교통약자 등 이용대상자들의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소요시간(대기시간 포함)이 일반 출국장 이용 시보다 평균 30%, 최대 44%까지 줄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승객 분산효과로 인해 기존 출국장(4개)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의 출국소요시간도 약 8%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공항 출국보안검색, 출국심사시간은 평균 6분, 성수기에는 16분 정도가 소요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범납세자, 독립유공자,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회적 공헌자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처우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사회공헌 및 시민의식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를 이용하려면 교통약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받고 “전용출국통로 출입증(Fast Track Pass)”을 받아서 전용출국장 입구(동편 Fast Track)에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11월부터 이용 가능한 법무부 출입국우대자의 경우, 별도의 출입증(Pass) 없이 “출입국우대카드” 또는 관련 카드증서를 전용출국장 입구에서 제시하면 된다.

/본사기자

방문취업(H-2)입국동포 법, 제도 의무교육 실시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 이하 지원단)이 지난 9월 1일부터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법과 제도를 주 내용으로 3시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사)동포교육지원단에 따르면 “법, 제도 의무교육은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동포들이 제도적, 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기에 교육을 통해 동포들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3시간 법, 제도의 의무교육은 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개별적으로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사전교육신청을 하면 되지만 방문취업을 전제로 기술교육을 받을 교육생들은 동포교육지원단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교육기관을 전국 11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2개 기관에 시범 위탁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은 (사)동포교육지원단, 한중사랑교회,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이 있으며 경기도는 양주 평화다문화센터,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단법인 나눔과 비, 강남대, 아주

대, 평택대가 있다.

인천지역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주안장로교회, 안산조선총교회, 다문화가족나눔지원센터이며 대전지역은 목원대가 선정되어 있으며 춘천, 부산, 제주, 광주, 전주, 창원, 청주, 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이로써 방문취업기술교육 대상자에게만 법무부 산하 동포교육지원단과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실시해오던 기초 법, 제도 무상교육을 이번에 장기체류하는 방문취업사증 입국 동포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니 동포들이 착오가 없길 바란다.

/본사기자

이미 입국한 외국인 퇴거처분은 더 신중해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서 뒤늦게 입국금지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입국 때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서 신중하게 강제퇴거 등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재중동포 이모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입을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이씨는 지난 2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신청을 냈지만 되레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2008년 3월 한국에 체류하던 중 고소를 당

했던 기록이 문제가 됐기 때

에게서 뒤늦게 입국금지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입국 때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서 신중하게 강제퇴거 등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재중동포 이모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입을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이씨는 지난 2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신청을 냈지만 되레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2008년 3월 한국에 체류하던 중 고소를 당

성이 있다”며 “이들에게서 입국금지 사유가 발견·발생돼 처분을 할 때 출입국사무소가 갖는 재량권의 범위는 입국심사 때보다 좁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입국 후 대한민국에서 형사 사건으로 문제가 된 것이 발견된 경우 강제퇴거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이 범한 범죄행위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씨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뒤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정, 경제 및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본사기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찾아가는 전화상담서비스' 확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4. 10. 7.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대상 범위를 2년 미만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까지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는 ‘13. 5. 21.부터 시작되었으며, 입국 초기 이민자들에게 외국인 출신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체류절차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국내 생활에서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출신 상담원이 자신들의 체류 경험과 출입국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4.6월 현재 서비스이용자 총 6,614명 중 65.9%가 만족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체 조사 결과)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는 지금까지는 입국 6개월 미만의 중국·베트남 등 7개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번 대상 확대로 입국 2년 미만의 7개 국가 결혼이민자와, 중국·베트남·몽골·일본 출신 4개 국가 유학생에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이번 맞춤형 상담서비스 적용대상자 확대를 통해, ① 1~2년차 결혼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취업, 영주권·국적취득, 가족초청 절차 등의 정보를 얻고, 한국생활 관련 고충을 상담할 기회를 얻게되며, ② 4개 국

가 유학생들도 국내 대학 생활경험 등이 풍부한 자국 출신 상담원으로부터 체류기간연장, 시간제 취업, 졸업 후 취업비자변경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08년 3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어 매년 120만 건의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유학생 등 외국인 출신 25명(귀화자 17명 등)을 포함한 93명의 상담원이 09:00 ~ 22:00까지 20개 언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조치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본사기자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 우대카드 발급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의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3월 17일부터 시작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의 대상자는 ▲ 국내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람 ▲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사람 ▲ 기타 대상 국가의 사회 유명인사 등이 포함된다.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게는 ▲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의 발급 ▲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 환율우대 혜택 ▲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무부

탁구회원 모집

탁구의 매력을 느껴본적 있는 재한 중국동포들의 숨어있는 장끼를 발휘하여 건강과 스포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민족탁구클럽"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탁구애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탁구의 매력 :

1. 민첩성, 순발력, 유연성에 도움이 된다.
2. 절주 빠른 운동으로 판단력, 적응력이 향상된다.
3. 취미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된다.

탁구의 특성 :

1. 계절에 관계없이 수시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2. 좁은 공간에서도 제한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3. 규칙이 간단하여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다.
4. 인원 제한없이 가족적인 스포츠로 즐길 수 있다.

참여문의 : 02-2676-6866, 010-6866-0815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재한중국동포 위한 '한민족탁구클럽' 운영

